

## 수잔-로리 파크스의 『비너스』 : 흑인여성의 몸에 나타난 식민주의적 억압과 폭력

박진숙  
(남서울대학교)

**Park, Jin-Sook. (2007). Suzan-Lori Parks' *Venus: Colonized oppression and violence in a black woman's body*. *English Literature & Literature Teaching*, 13(4), 253-27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lluminate how Suzan-Lori Parks reveals colonized oppression and violence in a black woman's body in *Venus*. The body of Hottentot Venus is an 'object' of white male spectators' gazes and a dissection from a medical study. The report on her pathologic anatomy gives the audience the illusion that the body of a black woman is inferior to those of others. Not only 'subjective' aesthetics, but also 'objective' medicine makes us confuse 'fact' with 'truth' about black women. By publicly exhibiting her erotic body, Venus is represented as a singular emblem for nineteenth-century colonial discourse on race and sexuality. Her body stands for the powerful signifier of raped Africa. A distinctive feature of black Venus is her raciality. The ownership of her body is only transferred from Mother-Showman to Doctor Baron. She had no right to her ownership. Her body is an object of hatred and curiosity and at the same time a site which is represented by conflicting desires. Parks' eventual goal in *Venus* is to investigate 'hindsight' of Venus Hottentot, 'the past' and 'the posterior'. As the meaning of original chocolate can be regained, the insulted and damaged body of Venus should also be recovered and resurrected.

[gaze/desire/body/objectification/black woman/colonized oppression, 응시/욕망/몸/대상화/흑인여성/식민주의적 억압]

### I. 서론

현대 미국 흑인극에서 주목 받고 있는 흑인여성극작가 수잔-로리 파크스(Suzan-Lori Parks)는 『비너스』(*Venus*)(1997)라는 작품에서 흑인여성 호텐토티 비너스(The Hottentot Venus)의 몸의 전시와 착취를 다루었다. 1810년 남아프리카 코이산(Khoi-san) 출신인 호텐토티 비너스는 런던으로 끌려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인관객들 앞에서 몸을 전시했고 그 후 프랑스의 해부학자 배론 닥토어(The

Baron Docteur)에 의해 의학 연구 대상이 되었다. 사후에도 그녀의 시신은 해부되어 대중에게 또다시 전시된다. 이 극은 노예제도 철폐 이후 런던에 큰 화제가 되었던 소위 호텐토트 비너스 즉 싸치 바트만(Saartjie Baartman)의 실화를 극화한 것으로, 바트만은 유럽에서 5년간의 몸의 전시 끝에 1815년 파리에서 생을 마감했고 시신은 해부되어 1816년 헨리 드 블레인빌(Henri de Blainville) 그리고 1817년에는 조지 큐비어(Georges Cuvier) 등의 학자에 의해 그 내용이 책으로 출판되었다.

호텐토트 비너스의 이야기는 19세기 초 유럽이 백인 식민주의 확장에 몰두하고 있을 때 흑인여성들의 신체를 정형화함으로써 만들어 낸 흑인여성들의 이미지에 대한 문화적 신화를 제공한다. 비너스를 통해 팍스는 백인중심의 시각에서 쓰여진 비백인 여성 신체의 역사를 다시 쓰려한다. 식민주의자들이 영토에 대한 지배나 장악을 통해 식민지를 무력화 시켰듯이 흑인여성의 신체를 착취하고 식민화한다. 팍스는 과거 흑인여성의 몸이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었는지 그리고 권력과 재생산의 원천이 되는 흑인여성의 몸에 지배적 담론의 힘이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비너스의 모습을 통해 고발하려 한다.

검은 피부에 튀어나온 입술 그리고 큰 엉덩이 등은 전형적인 흑인여성의 신체적 특성이다. 이러한 모습의 흑인여성 비너스는 백인관객들 앞에 전시된다. 관객들은 호기심과 욕망으로 자신들과는 다른 그 무엇, 더 정확히는 ‘대상’(object)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이때 백인관객들의 ‘응시’(gaze)는 타자에 대한 권위적 힘을 가진다. 그녀의 몸은 식민지적 응시와 전시 그리고 대상화를 통해 모욕 받고 손상된다. “연극에서, 훼손된 신체는 신체가 참아내는 구속과 억압을 단지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재현의 장소이다” (Gilbert, 1996, p. 221) 라는 말처럼 무대에서 생생히 구현되는 흑인여성 비너스의 몸의 착취와 손상은 관객에게 강한 여운을 남긴다. 본 논문에서는 몸의 전시와 응시 그리고 권력의 문제가 어떻게 흑인여성의 몸에 구현되는지를 통해 흑인여성의 몸에 가해진 식민주의적 억압과 폭력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이러한 폭력적 상황에 처한 비너스의 모습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논해 보고자 한다.

## II. 눈으로 만지기: 식민적 응시와 몸의 전시

아프리카의 흑인여성 호텐토트 비너스의 몸의 전시는 당시 백인남성관객에게 흥미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런던의 명물이 되었다. 그녀가 이토록 대중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은 이유는 “솔단지 만큼 큰/ 그녀가 가진 엉덩이”(Parks, 1997, p. 62)<sup>1</sup> 때문이었다. 수염 난 소녀, 원숭이를 닮은 사람, 점박이, 애꾸눈, 똥

<sup>1</sup> 본문에 인용되는 팍스의 『비너스』는 1997년판(New York: Theatre Communications

보 등 여덟 명의 인간별종(8 Human Wonders)들이 비너스와 함께 쇼에 동원되었지만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엄청나게 큰 엉덩이를 가진 아프리카 소녀 비너스였다. 쇼가 진행되는 내내 백인관객들은 회안하게 생긴 그녀의 엉덩이를 구경한다. 8명의 인종별종들 역시 때로는 관객의 일부가 되어 그녀의 전시된 몸을 바라본다.

비정상적 신체 특징을 가진 그룹 안에서 비너스의 변별적 특징은 그녀의 인종성이다. 몸에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채 사람들 앞에서 전시되는 그녀의 모습은 백인에게는 혐오감을 주는 동시에 조소의 대상이 된다. 그녀의 몸의 전시는 백인들로 하여금 흑인여성의 신체를 자신들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시각적 구현물이다. 흑인과 유럽인에 대한 표시로 구별되는 종족의 차이는 식민지의 문명화를 공고히 하려는 유럽인들의 의도이다. 즉 비너스는 유럽백인문화에 의해 투사된 인종적 허상을 재생산한다.

비너스의 몸에 행해지는 폭력성은 이 작품 전체에 두루 편재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폭력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백인식민주의자들의 응시이다. 응시는 신체를 종속의 위치에 붙잡아두는데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사이의 시선 관계는 응시의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분명히 보여준다. 권위를 부여 받은 응시자는 응시대상 즉 타자를 권력의 대상으로 만든다. 대상을 보는 주체와 보여지는 응시의 대상의 관계에서 보는 주체에 반해 보여짐 즉 응시를 당하는 대상은 타자화되고 그들의 시선 안에 통제된다.

응시는 우선 대상으로서의 타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작품에서 응시는 주로 남성들 특히 백인남성 관객에서 시작되는데 이들의 응시는 식민적 그리고 인종적 권력을 부여 받은 하나의 힘이며 여성의 신체를 통제하는 강력한 방식이다. 비너스의 몸은 관객과 백인남성해부학자들에게 ‘보여진다’. 옷을 벗고 포즈를 취하는 그녀의 몸을 관객과 해부학자들은 구석구석 훑어본다. 응시의 가장 큰 욕망은 전시된 대상을 ‘눈으로 만진다’는 것이다. 눈으로 만진다는 것은 가장 은밀하고도 강렬하게 은폐된 응시가 가진 욕망이다.

주지하다시피, 보는 것과 욕망과의 관계는 미술, 영화, 연극을 비롯한 거의 모든 예술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라캉(Lacan, J, 1977)은 시각과 응시 그리고 욕망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시각의 영역이 욕망의 활동영역으로 통합될 때 욕망의 기능 속에 응시의 특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p. 85). 보는 것을 통해 쾌락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이는 여러 유형의 쾌락 중에서 특히 성이나 성욕에 관련해서 분석한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시각쾌락증(scopophilia)의 개념을 빌어올 수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하나의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통제적이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타자를 지배하려는 행위이며 신체기관이나 생식기와 같이 특히 금기시되거나 비밀스러운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낀다는 것

이다. 이러한 시각쾌락증은 단지 보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을 통제적 응시 하에 종속시킨다(Mulvey, 1988, p. 59).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비너스의 몸에 대한 응시와 집착은 은밀한 것을 즐기는 개인의 심리적, 성적 취향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는 것’ 혹은 ‘보여짐’의 위험성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호미 바바(Homi Bhabha)가 “피부는 인종의 스테레오타입에서 문화적, 인종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기표”(Gilbert, 1996, pp. 253-4 재인용)라는 말을 상기할 때 검은 피부의 흑인여성이 미개한 모습으로 그리고 성적 대상으로 보여짐으로 인한 문화적 식민화의 담론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극을 바라보는 관객 역시 응시자가 된다. 관객은 무대 위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응시함으로써 비너스의 몸의 착취와 응시에 개입한다. 1996년 공연 때 비너스를 연기했던 배우 아디나 포터(Adina Porter)의 의상도 매우 과장되었는데 그녀는 큰 엉덩이를 표현하기 위해 바디슈트를 통해 에로틱하면서도 비정상적으로 큰 흑인여성의 엉덩이를 관객에게 보여준다. 이렇듯 흑인여성에 대한 전시와 응시는 필연적으로 그들을 에로틱한 대상으로 설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유럽사회에서 아프리카 여성의 몸의 전시가 갖는 의미는 흑인성과 여성의 성욕을 연결하여 대중에게 보여주려는 데 있다. 비대한 엉덩이와 큰 생식기는 흑인여성의 과도한 성욕(sexuality)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럽 백인들에게 흑인들은 지나친 성욕으로 인한 성적실천들을 생래적으로 지닌다고 믿게 한다. 일람(Elam)과 레이너(Rayner)(1998)는 호텐토티 비너스를 “인종과 성에 대한 19세기의 식민적 담론 형상을 위한 중요한 상징으로”(p. 265) 규정했는데, 성화된 그녀의 검은 몸은 백인들에게 인종과 성에 대한 우월의식을 심어준다.

몸을 성화시키는 일과 함께 흑인여성의 몸의 전시와 응시에서 중요한 일은 그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일이다. 흑인들을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만들어 그들을 탈 신비화 시킨다. 비너스의 몸은 흔히 동물과 비교되거나 동물처럼 취급된다. 철장에 갇힌 채 몸부림치거나, 관객들이 던져준 초콜렛을 받아먹는 모습은 흡사 동물원의 원숭이를 연상시킨다. 그녀는 인간과는 다른 종으로 인간이라기 보다는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구현된다.

#### 대모-사회자

신사 숙녀 여러분 : 비너스 호텐토티입니다.

그녀는 1년간 문명사회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배운 게 없네요.

주님의 위대한 진화 계층에서 가장 낮은 종이죠!

보세요: 제가 그녀를 개 차듯이 잡니다

#### The Mother-Showman

Ladies and gents : The Venus Hottentot

Shes been in civilization a whole year and still hasn't learned

nothin!

The very lowest rung on Our Lords Great Evolutionary Ladder!

Observe : I kick her like I kick my dog! (p. 45).

콜린즈(Collins)(2000)는 대중 앞에서의 흑인여성들의 전시가 “흑인여성을 동물로 객관화시키고 동물로서 흑인여성의 아이콘을 만드는데 핵심적”(p. 139)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일반인에게 미개하고 야만적인 그녀를 통제할 명분을 심어주는 것이다.

비너스가 살아 있을 때 관객의 응시가 그녀의 엉덩이었다면 사후에 유럽인들의 관심이 그녀의 생식기로 옮겨간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흑인들의 크고 늘어진 생식기는 그들의 성욕을 상징하는 것으로 흑인들이 성욕이 큰 이유는 성 기관이 백인보다 더 발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너스가 죽은 후 실시한 시체해부에서 대중의 관심은 그녀의 생식기에 맞추어진다.

음핵은 보통에서 큰 크기였고  
 유럽여성들 보다는  
 확연하게 위치해있는  
 잘 발달된 포피를 가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외음부에서부터 늘어져 있는  
 긴 것들이었다.

The clitoris sized moderate to large  
 and had a well-developed *prepuce*  
 all situated far more conspicuously  
 than in the European female.  
 Her most remarkable feature  
 were the long appendages  
 which hung down from her *pudendum*.. (p. 149)

이는 결국 엉덩이가 성욕에 대한 열망이었다면 생식기는 ‘행위에 대한 표시’로서 백인남성들로 대변된 관객 혹은 응시자들의 궁극적 욕망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녀의 몸은 사후에도 여전히 응시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고 오히려 의학의 도표로 전시되고 활용된다. 극의 중간중간에 전해지는 자세한 시체해부 보고서는 호텐토티 여성의 성기는 해부학적으로 백인들의 그것과는 다른 것임을 백인에게 인지시켜 흑인여성의 몸이 열등하다는 사실을 보편적인 상식으로 인식시킨다. 이로서 흑인여성의 몸이나 역사는 실제 자체라기보다는 투

영된 환상의 대상으로서 조작된다.

배론은 콜롬부스(Columbus)의 이름을 거론하는데(p. 104), 콜롬부스가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고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그 역시 비너스의 신체를 탐험하려한다. 그는 흑인에 대한 백인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정량화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몸을 검사하고 해부하는데, 그녀의 신체는 이로서 식민화 된다. 아프리카를 침범했듯이 그녀의 신체 역시 침범 당한다. 비너스에 대한 신체적 침범과 침략은 그녀의 신체를 구속하고 종속한다. 비너스 스스로도 “난 나의 검은 표지를 씻고 싶어”(p. 76) 라고 할 만큼 그녀 역시 자신의 ‘검은 몸’을 혐오한다. 그녀의 신체가 식민화 되고 침략당한 아프리카를 상징한다고 볼 때 그녀는 강간당한 나라, 식민화된 신체에 대한 기표(signifier)이다. 정치적 식민화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식민화를 상징하는 기표의 의미는 끊임없이 다른 힘들로 대치된다.

보우머(Boehmer)(1993)는 식민화된 주체의 신체는 낯설거나 원시적인 것, 공포와 호기심과 함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성과 함께 매우 성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지배당하기 쉽고 무엇보다 소유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한다(p. 269). 비너스의 몸의 소유권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녀의 몸은 한번도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은 자본가이자 식민주의자인 대모-사회자에게 양도되어 관객에게 전시되었고, 전시 될 때는 관객의 응시의 대상이었으며 해부학자 배론과 많은 해부학자에게 넘겨져서는 응시와 실험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전이될 뿐이다.

### III. 착취와 공모? : 상충하는 욕망의 장소로서의 몸

막간뿐 아니라 장면 장면에서 비너스의 시체해부에 대한 의학보고서가 자세히 낭독된다. “그녀의 귀는 원숭이들의 귀와 흡사하다: 작고 외이도 입구의 작은 돌기인 이주에서 약하게 형성되어 뒤로 가면 거의 사라진다”(p. 109) 혹은 “무엇보다, 그녀는 원숭이와 같은 모양으로 입술을 내민다”(p. 110) 등과 같이 그녀의 신체는 사람이 아닌 원숭이나 침팬지와 같은 동물에 비교된다.

#### 배론 닥터어

....

짧은 발가락 근육의 상태는 다소 변이적 특성이 나타난다.

두 가지 다른 근육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태는 우리에게 흥미로운데, 인간만이 발가락 근육 전체가 발의 골절에서 나오는데 비해서 침팬지와 모든 열등한 영장류에서는 이 근육의 상당 부분이 항상 긴 앞다리 힘줄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The Baron Docteur**

....

The condition of the Flexor brevis digitorum pedis presented rather anomalous characters

it might be said to form 2 distinct muscles.

This condition interests us

because of the well-known fact that in the chimpanzee,

and all inferior Primates, a considerable portion of this muscles

always arises from the long flexor tendon while in man alone

the whole of it commonly takes origin from the Os calcis. (p. 97)

의사이자 해부학자인 배론은 비너스의 엉덩이의 크기와 모양뿐 아니라 신체의 구석구석을 해부하고 분석하여 이를 학문화 한다. 배론 닥터어로 대변되는 의학이나 학문은 흑인여성을 진화가 덜된 열등한 존재로 밝혀내는 데 매우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학문, 특히 의학은 이처럼 흑인여성에 대한 ‘사실’과 ‘진실’을 혼동하게 만든다. 19세기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이 밝혀낸 과학이나 골상학(Phrenology)과 같이 신체를 규명하는 학문들은 흑인여성은 인간의 종이 아닌 좀더 하등한 존재라는 인식에 힘을 실어주었다. 일반인들이 단순히 외형적으로 혹은 미학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의학이나 과학과 같은 학문들이 그들의 신체를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규정지어 알려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막연한 일반인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벗어나 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이를 상식화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과학이나 의학은 흑인여성의 몸의 전신나 착취를 상식이자 진리로 구축한다.

해부학자와 연구자들은 마침내 흑인여성이 성병에 걸린 창녀라는 ‘증거’를 찾아내려한다. 배론의 동료인 초등학교 친구(The Grade-School Chum)는 배론을 성병으로 진단했고 비너스 역시 감염되었음을 알게 되자, 배론에게 비너스를 감옥에 보내자고 제안한다. 사실, 처음부터 백인의사인 배론 닥터어와 실험대상에 불과한 흑인 비너스간의 관계는 실험자와 실험대상일 뿐 정상적인 연인이나 결혼생활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백인남성과 흑인여성간의 관계에서 흥미로운 것은 피부색과 질병을 연결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여성들을 성욕이 강한 사람들로 질병 특히 성병을 유발하는 존재이므로 흑백간의 결합은 백인의 영혼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흑인여성의 검은 몸은 미개하고 열등함의 상징뿐 아니라 저주와 질병으로 재현된다.

19세기 후반 흑인, 특히 흑인여성과 성병공포와의 연관은 분명하다. 흑인여성들은 단지 성화된 여성으로 대변될 뿐 아니라 부패와 질병의 원천으로 재

현된다.(Gilman, 1985, p. 231)

특히 흑인여성의 죽음을 나병이나 천연두와 같이 시각적으로 가시화되는 병과 연관 시키는 것은 흑인여성의 깨끗하지 못한 생식기를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질병은 흑인을 성욕 많은 창녀의 이미지로 이끄는 데 효과적이다. 비너스는 배론에게 성병을 옮은 피해자이지만 오히려 피해자인 그녀가 재판관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팩스는 암시하고 있다.

과학적 학문과 더불어 그녀의 몸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해주는 것은 법 제도이다. 비너스가 법정에서 서게 된 이유는 그녀의 몸을 전시함으로써 백인관객에게 외설스러움과 불쾌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비너스가 건네준 깃털을 받은 후 남편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여인을 통해 흑인여성 비너스는 강한 성욕의 상징으로 다시 한번 재현된다.

### 비너스

#### B 전시관:

소위 비너스 호텐토티  
의 머리에서 뽑은 깃털  
그 깃털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지--  
이 깃털을 어루만지면 불임이 치료되고  
이 깃털을 갈아서 먹으면 끝내주는 최음제가 되지.

### The Venus

#### Exhibit B:

A feather from the head of the  
so-called Venus H.  
The feathers were said to bring good luck--  
when stroked such feathers cured infertility.  
When ground and ingested these same feathers proved  
a brilliant aphrodisiac.(p. 70)

그녀의 외설스러움이 문제가 되는 법정의 최대 관심사는 그녀가 자신의 몸의 전시와 착취에 가담했느냐 하는 것이다. “자유의지로 런던에 왔는가 아니면 어떤 제지가 있었는가?” 라는 법정단의 질문에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왔다”(p. 75) 라는 비너스의 대답은 자신의 성적착취와 몸의 전시에 그녀가 동의했음을 뜻하는 것이다.<sup>2</sup> 비너스의 몸에 대한 착취에 그녀가 가담하고 있다는

<sup>2</sup> 영 (Young, J.)(1997)은 팩스의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이 극이 끔찍스런 여성의 성과 몸의 착취에 비너스가 공모하고 있고 이를 다시금 재현한다고 비판하였다(p. 699).

사실은 그녀의 비극성을 희석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일이다. 인즈(Innes)(2000)는 “착취된 희생자는 자신의 몸을 매매하는 매우 똑똑한 사업가”(p. 26)라며 그녀의 몸에 대한 매매와 상품화에 가담했음을 지적했다.

법정단의 질문에서 보았듯 그녀가 끌려왔는가 아니면 본인의 의지대로 왔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비너스는 “내가 선택 해야 하나요?”(Do I have a choice?)라는 말을 반복하지만 실제로 그녀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비너스는 쇼에 시를 첨가해서 좀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자고 대모에게 건의하지만 관객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다채로운 볼거리가 아니다.

### 대모-사회자

넌 엄청나게 큰 방뎁이를 가진 토종 감동이야.  
그게 바로 사람들이 돈을 내는 이유지.  
그들의 시선은 너의 엉덩이에 열광하지.  
시는 거기에 있지.

### The Mother-Showman

Yr a Negro native with a most remarkable spanker.  
Thats what they pay for.  
Their eyes are hot for yr tot-tot.  
Theres the poetry.(p. 51)

이 작품의 배경은 시기적으로 노예제도가 철폐된 이후인데도 여전히 타자에 대한 성과 몸의 착취는 빈번히 그리고 죄의식 없이 일어난다. 이는 두 가지를 상징한다. 첫째로는 노예해방이 된지 3년이 흘렀지만 흑인들 스스로의 자각이나 인식이 이에 미치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예제도가 없어진 이후에도 몸과 성에 대한 착취는 자본주의 경제착취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과거 노예제도하에서는 전시와 경매 그리고 노동의 대상으로 그리고 현재는 자본주의 하에서 그들의 신체는 착취되고 있다.

“사람들은 너희 같은 족속이 거리에서 활발하게 두질 않아”(p. 56)라는 대모-사회자의 말은 흑인 특히 흑인여성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를 얻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상기시킨다. 비너스는 짧은 시간에 런던이라는 제국주의의 심장부에 와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자본가이자 식민주의자인 오빠(The Brother 후에 대모-사회자가 됨)의 말에 현혹되지만 그녀가 도착한 런던은 아프리카의 시골소녀가 생각하는 화려함이나 고상함의 장소가 아니었다.

### 소녀

언제 우리가 영국에 도착해요?

**오빠**

여기가 영국이야! 모르겠어?

**소녀**

잘 몰랐어요.

(휴지)

금빛 거리는 어디 있죠?

**오빠**

구부러진 저 길을 돌면 있어

여기서는 안보여.

**The Girl**

When do we get to England, Sir?

**The Brother**

This is England! Cant you tell?

**The Girl**

I wasnt sure.

(Rest)

Where are the golden streets?

**The Brother**

Just around that bend there.

You cant see them from here.(p. 22)

그녀가 상상한 ‘금빛거리’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는지 모른다. 그곳에서 그녀가 하게 될 일이라곤 자신의 몸을 전시하고 사람들의 응시와 착취의 대상이 되는 일 뿐이기 때문이다.

관객이 그녀에게 초콜렛을 던져주고 이를 훔아먹는 장면은 동물처럼 보이는 동시에 매우 에로틱하다. 이 극에서 초콜렛은 중요한 성적 상징물로 등장한다. 밀러(Miller)(2002)는 이 극에서 초콜렛은 마약으로, 사랑에 대한 상징적 고백으로 그리고 최음제로서 기능한다고 지적했다(p. 134).

**배른 닥토어**

보지마! 날 보지 말라고!

다른 데를 봐

초콜렛을 먹어

천천히 그걸 먹으라고

그거야

널 만져봐

좋아.

좋아.

(그는 자위한다. 그는 그녀에게 등을 지고 있다. 그는 가만히 그의 어깨 너머로 그녀를 훔쳐본다. 그는 오르가즘에 이른다.)

### The Baron Docteur

Don't look! Don't look at me.

Look off

somewhere.

Eat yr chockluts

eat em slow

thats it.

Touch yrself.

Good.

Good.

(*He's masturbating. He has his back to her. He sneaks little looks at her over his shoulder. He cums.*) (p. 106)

초코렛과 자위행위가 병치되는 이 장면은 서로 얽혀있는 인종주의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욕망이 재현되는 부분이다. 백인지식층인 배론에게 비너스의 신체는 여러 욕망들이 혼재되고 혼합되어 있다. 우선 흑인여성의 몸은 혐오스럽지만 궁금한 호기심의 장소로 성적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권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인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 [배론]의 자위는 비너스를 위협과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드러난 호미 바바와 다른 사람들이 흑인 “원주민”에 대한 식민주의자들의 양가적 태도라 부른 것을 재실행한다.(Elam, 1998, p. 275)

배론이 미개한 비너스의 몸과 성을 무시하면서도 자위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성적만족을 느끼지 못했음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그의 무성화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다. 비너스는 배론의 목에 깃털을 걸어주며 “이걸 목에 걸고 빼지 말아요/ 행운의 깃털 이에요 부적의 일종이죠/ 도움이 될 거예요”(p. 107)라고 말한다. 가장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그가 미신의 풍속을 받아들인다는 점 그리고 미개한 비너스에게서 성욕을 얻어간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다.<sup>3</sup>

<sup>3</sup> 과도한 흑인들의 성욕을 비판하면서도 종종 백인들은 자신들의 성적 메마름이나 무

그녀의 성적욕구를 빌어와는 하는 경우는 “비너스의 사랑을 위하여”(For the love of the Venus)라는 제목의 극중극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 극중극은 한번이 아닌 극 전체에 고루 퍼져 있고 중간중간 나타난다. 이것은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가 비너스에게 마음을 뺏긴 신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전형적인 멜로드라마 형식으로, 결국 예비신부는 흑인여성 비너스처럼 자신을 변장함으로써 신랑이 될 영 맨(Young Man)을 속여 자신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흑인여성의 성욕을 비판하면서도 백인지배권력층은 이러한 야생성과 성욕에 대한 욕망을 좇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부가 될 백인여성은 비너스의 힘을 빌어야 남성의 사랑을 얻게 되는 상황은 백인지배계층의 성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형태를 상징적으로 노정한다. 팍스의 극중극은 내용적인 면과 함께 형식에 있어서도 매우 대안적인 극 방식을 제공한다. 극중극은 응시된 대상의 분열을 통해 시선을 호트러트립으로써 극 전체를 관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응시를 전복하는 가장 우세한 방법 중 하나는 극중극을 통해서인데, 이 장치는 관객의 관심을 매우 조심스럽게 집중시키는 반면 역설적이게, 한곳에 집중되어야 할 시선을 분산시킨다. ... 극중극은 시각적 초점의 중심을 적어도 두 개의 위치로 분산시킴으로써 관객의 응시는 분열되는 동시에 늘어난다. 이에 따르는 이중적 시각(시각은 적어도 이중이 된다)은 관객들이 배우들이 내부 극을 지켜보는 장면을 보면서 연극과 극중극을 동시에 바라봄으로써 극 전체광경을 재 조망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Gilbert, 1996, p. 250)

극중극을 통해 팍스는 몰입되어 있는 관객의 시선을 끌어내어 좀 더 객관적으로 백인지배계층의 모순과 위선을 바라보게 한다.

팍스의 극은 단순히 흑인들의 삶의 재현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 자신들의 공유된 비밀과 집단적 기억들을 백인사회에 상기시킨다. 그녀는 이러한 상기의 과정을 보다 실험적이고 다양한 전략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극의 장면들은 첫 장이 31장에서 시작해서 1장으로 거꾸로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팍스의 아방가르드적 극적 기법의 하나로 생소함을 통해 관객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과거 역사 속 비너스가 겪어온 삶을 하나씩 소거해가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 극은 시간연대기적 순서로의 진행이 아닌 부활을 꿈꾸는 순환구조를 갖는다. 첫 장면도 비너스의 죽음으로 시작된다. “비너스 호텐토트가 죽었음을 알려드려 유감입니다”, “오늘밤 쇼에는 안 옵니다”(p. 3)라며 등장인물들이 차례로 나와 그녀의 죽음을 알린다. 처음부터 그녀는 죽어있다. 이는 바로 역사 속에서의 그녀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후 그녀는 침묵을 깨고

---

력함으로 인해 오히려 흑인의 성욕을 빌리기도 한다(박진숙, 2006, p. 214).

나타난다. 이미 죽은 자신의 쇼에 출현하는 것이다. 역사에 의해 침묵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죽은 비너스를 불러낸다.

쇼를 진행하는 사람은 흑인 도굴업자(Negro Resurrectionist)로, 그는 흑인들의 무덤가를 지키다가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해부용으로 팔아 넘기는 사람이다. 콕스는 마치 시신을 도굴하고 파헤치는 그들처럼 수치스럽고 가슴 아픈 흑인들의 역사를 파헤치려 한다. 그러나 콕스가 시체도굴업자와 다른 점은 흑인들의 소생을 위한 역사의 파헤침이라는 것이다. 콕스가 궁극적으로 호텐토트 비너스를 통해 흑인여성의 역사에서 지적하고 탐색하려 했던 것은 흑인여성들의 뒷태(hindsight) 즉 그들의 ‘과거’(the past)와 ‘영덩이’(the posterior)이다. 영덩이로만 대변되는 흑인여성들의 과거를 다시 돌아보고 이를 지움으로써 새로운 현재를 만들어 가려 한다.

이제는 빼앗겼던 흑인들의 존재 그리고 변질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마지막 장(1장)에서 또다시 초콜렛이 등장하는데, 이 극에서 초콜렛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초콜렛의 이야기는 마지막 장 전체에 걸쳐 진행될 만큼 비중이 크다. 원래 초콜렛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사랑을 고백할 때 쓰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관객들이 던져주는 것을 비너스가 훔아먹는 매우 성적인 것으로 전락하였다. 초콜렛을 많이 먹은 비너스는 점점 더 똥똥해져만 간다. 비너스는 “초콜렛이 전에는 감정을 자극하거나 영양의 원천으로 사용되어 온 반면에, 오늘날에는 주로 엄청나게 살이 찌는 주요원인이며 쾌락의 원천이다”(p. 156)라고 변질된 초콜렛의 의미를 전한다.

카카오는 원래 신들의 음식이요 축복의 음식으로 인식되었으나 스페인에서는 이로 인해 사람이 죽고 이후 유럽에서는 초콜렛 반대운동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pp. 155-156), 서구문화에서 초콜렛은 매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비난의 대상인 동시에 욕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 극에서도 다갈색의 초콜렛은 그 색이 암시하듯 흑인인 비너스를 연상시키고 그녀에 대한 이중적 욕망을 표현하는 상징물이다.

초콜렛 색의 살찐 몸을 가진 그녀의 이야기와 카카오 역사의 보고서의 병치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명백함 속에도 그녀와 초콜렛, 그리고 더 나아가, 흑인여성들 모두가 서구의 문화적 상상력 안에 자리잡고 있는 다양한 역할이 존재한다. 이들의 위치는 각각 외부 시선의 인식과 권위에 달려있다. 동시에 비너스는 초콜렛과 그녀 자신을 사랑한다.(Elam, 1998, p. 279)

초콜렛의 역사는 억압과 폭력이 점철되어 온 식민주의의 역사이자 흑인여성의 몸의 역사이기도 하다. 초콜렛의 긍정적인 역할과 의미는 무시된 채 현재는 손상되고 변질된 부분만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초콜렛이 사랑과

축복의 음식으로 기쁨을 준 긍정적 의미가 가지듯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어 오던 흑인여성들의 몸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흑인여성인 비너스의 문제점 역시 없지는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 스스로도 흑인으로서의 인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흑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신체를 애정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너스의 몸은 착취와 공모가 함께 공존한다. 심지어 그녀 역시도 이러한 착취와 공모에 가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노예해방이 끝났지만 흑인여성인 비너스나 다른 흑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주장하기에는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 없이도 없이 노예해방을 맞이한 그들은 경제적, 정신적 자립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노예의 상태를 벗어났지만 이를 해결할 수는 없다. 즉 그들은 정치적으로 자유인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노예의 자아상을 벗어나지 못한 ‘내적 식민주의’의 상황에 처해있다(권혁미, 2005, p. 168) 이미 식민화된 몸과 마음은 그곳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대모-사회자는 흑인소녀 비너스가 관객들이 던져주는 초콜렛을 먹고 자신의 몸을 전시할 뿐 문명사회에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보면 비너스의 긍정적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사람들은 그녀를 배운 게 없고 미개한 열등한 종으로 치부하려 하지만 사실 그녀는 그렇게 무지한 소녀가 아니었다. 비너스는 2년간 머물면서 당시 유럽의 제국주의의 언어들 즉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네덜란드의 부분적인 방언까지 소화해 내기 때문이다(p. 95). 배론 역시 그녀가 언어적 감각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감각적 재능을 가진 소녀였다고 고백한다.

그녀의 성격은 쾌활하고, 기억력은 좋았다. 그녀는 저급한 네덜란드어와 영어도 들어줄 만큼 했다 - 아카데미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그녀에게 불어를 가르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나라 식으로 춤을 췄고 유대인의 하프라 불리는 작은 악기를 꽤 웅장한 음감으로 연주했다.

Her personality was sprightly, her memory good. She spoke low Dutch, tolerably good English – the man at the Academy and I tried to teach her French. She danced after the fashion of her own country and played with a fairly good ear upon a little instrument she called a Jew’s Harp.(p. 110)

뛰어난 언어습득능력과 다재 다능한 그녀의 재능에도 불구하고 백인지배사회가 그녀에게 요구한 것은 커다란 엉덩이와 검은 몸을 사람들에게 전시하는 일뿐이었다. “비너스의 쾌활함도 언어의 능숙함도, 그녀의 은은한 고상함 그 어떤 것도 인종적 열등함의 기표로써의 바트만의

신체를 보는 큐비어<sup>4</sup>를 막지는 못했다”(Worthen, 1982, p. 13)라는 말은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 처한 흑인여성으로서의 시대적, 상황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비너스는 배론에게 끊임없이 “날 사랑하나요?”라고 묻는다. 그녀는 사랑을 갈망한다. 그녀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극에서 흑인여성의 존재가 부재했음을 알렸듯이,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 역시 이 극에서는 부재한다. 19장의 제목은 “사랑?의 장면”(Scene of Love?)이다. 이 장은 제목만 있을 뿐 아무런 대사가 없다. 이 장은 침묵의 공허함만이 존재할 뿐 비너스가 기대하는 그 어떤 사랑에 대한 믿음이나 언급도 없다.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 비너스는 “키스해주세요”(p. 162)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이는 그녀의 성적 갈망으로 읽을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채워지지 않은 그녀의 욕망을 상징한다. 그녀의 욕망은 돈을 벌기 위한 자본주의에 대한 갈망에서 배론을 통해 사랑을 원하고 그의 아내가 되어 인종적, 문화적 우월의식을 누리고픈 욕망들로 대치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녀가 원하던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한 욕망들은 힘겨운 현실 속에 끊임없이 상충하며 그녀 안에 남아있을 뿐 자신의 결핍을 채워 줄거라 믿은 욕망들은 이를 채우지 못하고 전치와 환유를 거듭할 뿐이다. 결국 응시와 전시의 대상인 비너스의 몸에 대한 욕망은 타인의 성적욕망과 비너스 스스로의 욕망들이 상충되고 다투는 재현의 장소였다. 흑인여성이 걸어온 과거는 그들의 몸을 통해 가시화 되었는데 몸의 전치와 착취라는 억압적 시선과 폭력적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콕스는 여성들에게 가해진 고통스런 역사를 탐색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통해 여전히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너스가 당대의 시대상황에서 혁신적인 변화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녀가 가진 가능성과 재능을 암시해주었다. 콕스는 역사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재조사하고 의문을 제기하려 하는 것이다.

#### IV. 결 론

흑인여성의 엉덩이를 바라보고 전시하는 것은 흑인성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이 극은 식민통치기간에 고통 받던 유색인 여성의 신체적 억압과 성과 인종에 대한 식민담론을 말해준다. 비너스의 신체는 침략당한 그녀의 민족이자 아프리카이다.

그녀가 백인남성들에게 응시의 대상이 되고 몸이 전시된 이유는 유난히 큰 엉덩이 때문으로 이는 흑인여성 호텐토트 종족이 가진 신체적 특성이다.

<sup>4</sup> 앞서 언급했 듯 싸치 바트만은 호텐토트 비너스의 원레이름(아프리카식)이고 조지 큐비어는 배론 닥터의 실제인물이다.

그녀가 남들과 대비되는 이유는 다름아닌 그녀의 인종성 때문이었다. 커다란 엉덩이를 가진 흑인여성의 신체구조는 큰 생식기와 연관되고 이는 다시 그들의 성욕과 연관된다.

흑인여성의 몸은 생태적으로 비정상적이고 성화된 존재라는 인식을 체계화시키는데 과학, 특히 의학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권위의 힘으로 비너스를 통제해 온 응시와 함께 의학이라는 학문은 그녀를 또다시 감금하고 구속한다. 의학은 그녀를 인간 이하의 종으로 분류하며 오랑우탄이나 고릴라 혹은 원숭이와 비교한다. 그녀가 죽은 후에도 시신해부를 통해 이어지는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은 상식으로 일반화시킨다. 살아서는 응시와 전시의 대상으로 그리고 죽어서는 실험용 해부의 대상으로 비너스의 신체는 또다시 절단된다.

그녀의 몸은 억압적 현실을 감당하지 못한 희생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녀의 훼손된 신체는 분명 극적 의미를 가진다. 무대에서 보여지는 상처받고 절단된 신체는 흑인들의 손상과 고통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현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문제점도 없지 않다. 싱클레어(Sinclair) (1996)는 흑인여성의 몸의 전시와 착취를 고발하기 위한 흑인극에서 다시 한번 흑인여성을 매우 모욕스럽게 재현했다고 비난한다(p. 22). 이는 결국 무대라는 장소가 갖는 ‘재현의 정치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과거 에로틱한 성적 대상으로 취급되고 유린된 흑인여성들의 신체를 보여주기 위한 재현의 과정이 낳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아울러 흑인들 각자의 자각과 인식의 깨달음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훼손된 신체는 상처와 억압을 보여주었다는 점만으로도 새로운 예술의 지점이 된다. 설령 비너스가 전복적 담론과 저항적 구현을 직접적으로 창출해내진 못한다 하더라도 그녀는 흑인여성신체의 착취와 억압을 드러내고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팩스는 흑인들의 과거 속에서 공유한 비밀과 집단적 기억을 현시대로 끌어온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흑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몸에 대한 응시와 착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흑인여성들의 역사는 자신들의 몸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과거 역사를 통해 어떻게 재현되어왔는가를 면밀히 재탐색하고 이를 심문하며 무엇보다 자신들 스스로 몸에 대한 애정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권혁미. (2005). 토니 모리슨 소설의 탈식민화 여정. *영어어문교육*, 11(4), 167-187.

- 박진숙. (2006). 케네디의 『니그로의 요술집』: 흑인여성 자아의 양상, *영어어문교육*, 12(1), 205-220.
- Boehmer, E. (1993). Transfiguring : Colonial body into postcolonial narrative. *Novel*, 27(2), 268-277.
- Collins, P. H . (2000).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2<sup>nd</sup> ed.). New York: Routledge.
- Elam, H. J., & Rayner, A. (1998). Body parts : Between story and spectacle in *Venus* by Suzan-Lori Parks. In J. Colleran & J. S. Spencer (Eds.), *Staging resistance: Essays on political theater* (pp. 265-282). Ann Arbor, MI: The U of Michigan.
- Gilbert, H., & Tompkins, J. (1996). *Post-colonial drama : Theory, practice, politics*. New York: Routledge.
- Gilman, S. L. (1985). Black bodies, white bodies: Toward an iconography of female sexuality in late nineteenth-century art, medicine, and literature. *Critical Inquiry*, 12, 204-242.
- Innes, C. (2000). Staging black history. *South African Theatre Journal*, 13, 20-29.
- Lacan, J.(1977). Anamorphosis. In Jacques-Alain M (Ed.), Alan S (Trans.), *The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pp.79-90). London: Penguin.
- Miller, G. (2002). The bottom of desire in Suzan-lori Parks's *Venus Modern Drama*, 45(1), 125-137.
- Mulvey, L. (1988).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In C. Penley (Ed.), *Feminism and film theory* (pp. 57-68). New York : Routledge.
- Parks, S. (1997). *Venus*. New York: Theatre communications group.
- Sinclair, A. (1996, May 4). Note on *Venus* by Suzan-Lori Parks. *The New York Amsterdam News*, p. 22.
- Worthen, W. B. (1982). Citing history: Textuality and performativity in the plays of Suzan-lori Parks. *Essays in Theatre*, 1, 3-22. Guelph, Ont: Dept of Drama, University of Guelph.
- Young, J. (1997). The re-objectification and re-commodification of Saartjie Baartman in Suzan-Lori Parks's *Venus*. *African American Review* 31(4), 699-708.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ed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ed Levels): Secondary

박진숙  
 남서울대학교 경영학과

330-707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1

Tel: (041) 580-2138

Fax: (041) 580-2916

Email: jspark107@nsu.ac.kr

Received in Oct. 2007

Reviewed in Nov. 2007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 2007